

2000년대 자민당 온건보수의 향방

—新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과 몰락

이정환

_국민대학교

1. 서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 정권은 외교정책 노선에서 2009년에서 2012년의 3년간의 민주당 정권에 비해 대한정책을 비롯한 아시아정책 전반에서 보다 보수적 입장에 서있다. 외교정책 노선에서 선명한 온건노선을 견지하는 비자민정치세력의 향후 집권이 단기간 이내에 곤란해 보이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으로 자민당이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보수강경의 입장과 차별되는 자민당 내의

온건보수파의 입장과 그들의 정치적 여건을 살펴보는 작업은 자민당의 향후 외교정책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현 당 지도부의 강경보수 입장과는 차별되는 온건보수적 성격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자민당 정치인들의 외교노선의 성격의 실제적 성격을 밝히고, 그들이 자민당 내에서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민당 내에서의 온건보수적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을 지니는 유력 정치인들은 향후 보다 건전한 한일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민당 내에서 현 지도부와 차별화된 온건보수의 외교정책 노선을 지니는 정치인들의 범주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일본 국내정치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향후 대일정책 모색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은 2000년대의 자민당 내의 외교노선의 갈등에 집중하여 보다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2000년대 자민당 내에는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가치관 외교노선 대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노선 대립은 현 자민당 지도부가 정권을 담당하던 2000년대 중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고가 마코토(古賀誠)가 소위 新YKK 정치연대를 구성하고, 당시 주류인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등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던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3인에 더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노다 다케시(野田毅) 등이 아베와 아소에 대립되는 자민당 내 비주류를 구성하고 있었다.

新YKK로 대변되는 자민당 내 비주류그룹은 비둘기파의 관점에서 친중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2006년의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자민당 내 파벌구도에서 실력자들이었던 이들을 단순하게 친중적 비둘기파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스스로 보수리

버릴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가토 고이치와는 달리, 아마사키 다쿠와 고가 마코토는 원래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간주될 수 없다. 상이한 정책노선과 파벌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이들은 2000년대 중반 자민당 내 비주류의 정치적 입장에서 연대하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정책지향점은 아시아 근린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이었다. 따라서 일본사회의 우익세력들은 이들을 친중파로 비난하는 관점을 견지하였으며, 자민당 내에서 당시 아베를 지지하던 강경보수 정치세력은 新YKK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가치관외교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価値観外交を推進する議員の会)’을 결성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 자민당 주류 의원모임의 입장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역사문제에서의 일본중심적 해석의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新YKK 정치연대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 근린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의 자민당 내 외교노선의 대립을 가치관 외교노선 대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대표하던 新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하지만 新YKK 정치연대를 구성하는 핵심 정치인들의 외교노선이 표면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체적 입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은 보다 세심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마사키, 가토, 고가 3인의 1)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 2)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 3)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 4)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기 비교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핵심적 내용과 주변적 내용

을 구별하여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¹⁾

新YKK 정치연대는 자민당 내 보수적이지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온건보수의 가능성을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민당 내의 권력투쟁에서 현재 몰락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베와 아소가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2012년의 상황에서, 야마사키, 가토, 고가는 모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계를 떠나게 되었다. 현재 정책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들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그들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이 자민당 내에서 계승되고 있는가이다.

2. 자민당 내 가치관 외교노선 대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대립

1) 2000년대 자민당 내 주류와 비주류의 역전

2000년대 들어 자민당 총재직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에 의해 이어졌다. 아소 다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리파에 속한 정치인들이다. 1970년대 외교노선에서 중일국교정상화에 소극적이고 대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던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의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의 2000년대 초반의 회장 모리의 이름을 딴 모리파는 역사적으로 헌법개정, 재군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자민당 내의 반요시다 노선을 대표해왔다.²⁾

1) 본 연구는 주로 아사히신문사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행되었다.

세이와정책연구회는 2000년대 이전에 자민당 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었다. 요시다 노선을 견지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의 고치회(宏池会)가 1960년대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었다. 1970년대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의 칠일회(七代会)-목요그룹(木曜クラブ)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지도하의 고치회와 연합하는 형태로 주류를 구성하였다. 1970년대 주류적 위치를 누려온 다나카파는 1980년대와 1990년대도 주류적 위치를 유지하여왔다. 1980년대 초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도 다나카파의 도움 속에 집권할 수 있었다. 다나카파 정치인들의 연이은 스캔들, 1990년대 초 다나카파의 핵심이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자민당 탈당과 자민당의 집권 실패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다나카파는 파벌 명칭을 1987년 경세회(経世会), 1996년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로 변화하였지만, 다케시타 노부루(竹下登),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로 회장직이 계승되는 동안, 자민당 주류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경제정책노선에서 적극재정을 선호하는 다나카의 후예들이 요시다 노선의 정통 계승자인 이케다의 후예들과 외교정책노선에서 비둘기파의 공통점 속에서 자민당 내 긴밀한 연대를 갖고 1970년대 이래로 자민당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해왔었다. 이에 반해 요시다 노선에 반하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통에서 있는 후쿠다 다케오의 후예들은 자민당 보수 본류에 대한 당내 야당의 성격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다.³⁾

자민당 당내 정치투쟁과 파벌 간 합종연횡은 언제나 치열하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 다케시타파에 대한 당내 저항은 보다 강력하였다. 정치스캔들과 오자와의 이탈로 약화된 다케시타파에 대항하는 범파벌적

2) 大下栄治, 『田中角栄VS福田赳夫 昭和政権暗闘史 四巻』, 静山社, 2010.

3) 河内孝, 『血の政治 - 青嵐会という物語』, 新潮社, 2009.

움직임으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소위 YKK 정치연합이다. 고치파의 핵심 중견이었던 가토가 나가소네파의 야마자키,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고이즈미와 함께 반다케시타파의 기치를 들고 범파별 정치세력연대를 구성하였다. 세 명의 이니셜을 따서 YKK트리오로 불린 이들은 신진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1994년 새로운 정치그룹 그룹 신세기(グループ・新世紀)를 발기하고 정치개혁을 앞세웠다. 이들의 공통의 지점은 다케시타파의 이익유도정치에 대한 비판이고, 따라서 YKK 정치연합의 출발점은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건전재정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파벌영수였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다케시타파의 도움 속에 총리로 취임하였지만, 가토는 반다케시타파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위한 범파별적 연대를 추구한 것이다.⁴⁾

가토를 중심으로 한 YKK 정치연합은 파벌보스 간의 타협으로 등장한 2000년 모리 내각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결의안에 찬동하는 ‘가토의 난’을 기점으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토와 야마자키가 모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한 것에 비해, 고이즈미는 파벌영수인 모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세력규합에 실패한 가토와 야마자키는 자민당 내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가토는 자민당 보수분류인 고치회의 분열 속에 파벌에 대한 지도력마저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고치회는 자민당 내 위상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YKK 정치연합은 2001년 고이즈미가 집권하면서 와해되었다. 야마자키가 고이즈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비해서 가토는 고이즈미 내각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YKK의 정치적 구심력은 와해되었다.⁵⁾

4)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5) 위의 책.

고이즈미는 우정개혁과 도로공사개혁, 공공사업 축소의 구조개혁 노선을 통해 다나카파의 핵심정치기법인 이익유도정치의 근간을 부수는 기획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2005년 우정선거에서의 정치적 성공으로 자민당 내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⁶⁾ 고이즈미의 정치기법은 기존의 파벌 간 조정의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고이즈미의 정책과 정치적 선택은 자민당 내의 헤이세이연구회의 저하와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강화를 가져왔다.⁷⁾ 다나카와 후쿠다 다케오의 1972년 자민당 총재 선거 이래로의 오래된 경쟁에서 후쿠다의 다나카에 대한 승리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이래로 자민당 내에 세이와정책연구회는 주류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고이즈미-아베-후쿠다 야스오는 모두 후쿠다 다케오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고이즈미는 후쿠다 다케오의 비서관으로 정치입문을 하였으며, 아베 신조는 후쿠다 다케오로부터 파벌영수를 이어받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의 아들이고,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의 아들이다. 이러한 후쿠다 다케오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2세 정치인들이 세이와정책연구회의 파벌을 토대로 자민당을 이끌어 온 것이 2000년대 자민당 내부정치의 핵심적 현상이었다. 2008년 취임한 아소는 세이와정책연구회 파벌의 소속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소수파벌의 지도자인 아소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세이와정책연구회 파벌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⁸⁾

6) 清水真人, 『官邸主導: 小泉純一郎の革命』, 日本経済新聞社, 2005.

7) 박철희, 2011.

8) 위의 책.

2) 외교노선을 둘러싼 자민당 내 갈등:

가치관 외교노선과 新YKK의 현실주의적 관점

고이즈미는 국내경제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치권 내의 관점이 증가하였지만,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1990년대 내내 미일동맹의 근간 속에서 근린국 중국과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과거사 이슈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노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 정권은 2001년의 9·11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구하였고, 고이즈미 총리는 중국과 한국과의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지속하였다.

고이즈미 정권의 외교노선은 자민당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YKK 정치연합으로 1990년대 고이즈미와 밀월관계에 있던 가토와 야마자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고이즈미의 총리 취임 후 고이즈미와 소원해진 가토는 자민당 내에서 보수 리버럴의 목소리를 발신하며 외교정책 노선에서 매파의 목소리가 커진 자민당 내의 야당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⁹⁾ 한편 야마자키는 고이즈미 취임 후 간사장으로 취임하여 당내 반발로부터 고이즈미 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테러전쟁에 대한 고이즈미 정권의 미국과의 협조에 적극 협조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가 우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야마자키는 고이즈미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불거진 중일, 한

9) 加藤紘一, 『強いリベラル』, 文芸春秋, 2007.

일 간의 갈등의 증폭을 계기로 고이즈미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¹⁰⁾

2000년대 중반의 자민당 내 비주류적 정치적 입장은 고이즈미의 대아시아 외교노선에 대한 반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일단 고이즈미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아시아국가들의 반발에서 기인했다. 2005년 야마자키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대체시설을 고민하는 의원모임으로서 ‘국립추도시설을 생각하는 모임(国立追悼施設を考える会)’을 발족시켰다.¹¹⁾ 야마자키를 회장으로 하는 이 모임에는 오랜 맹우인 가토와 함께, 자민당 내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등이 참여하였다. 후쿠다 다케오의 아들이지만 후쿠다 야스오는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매파적 외교노선에 서있지 않다.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총리로 취임한 아베 신조가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매파적 외교노선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마자키와 가토의 고이즈미의 대아시아 외교노선에 대한 반발은 고가와와 새로운 삼자관계 정립을 통해 발전되었다. 야마자키와 가토는, 가토의 난 이후 분열된 고치회의 지도자이자 고이즈미의 도로공단민영화개혁에 강하게 반발했던 도로족(道路族)의 대표적 인물인 고가와 함께 새로운 연대를 이루었다. 야마자키, 가토, 고가의 新YKK 연합을 묶는 지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는 아니었다. 고가는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다.¹²⁾ 3인의 구체적 외교현안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고 차별화되지만, 그들은 모두 일본이 중국, 한국,

10) 박철희, 2011.

11) 『朝日新聞』 2005년 11월 17일.

12) 고가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일본유족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0년대 중반에는 야스쿠니 신사 총대(總代)직도 맡았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근린국외교에 매우 유화적 입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중국, 한국과의 협력적 관계가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 갈등적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들 3인은 명시적 그리고 비명시적으로 고이즈미의 후계로 아베가 총리에 취임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¹³⁾ 그리고 아베 집권 중인 2007년에 新YKK의 회합을 계기로 세력화를 시도하고, 참의원 선거에 대패한 아베를 끌어내릴 구상을 도모했다.¹⁴⁾ 아베가 2006년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베의 역사관과 그에 입각한 가치관 외교노선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 新YKK 정치연합에 의해 대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아베 정권 하에서 자민당 내의 구도는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新YKK의 비주류간의 대립이었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외교노선에 대한 갈등이 놓여있었다. 아베 지지그룹은 '가치관 외교를 추진하는 의원모임(価値観外交を推進する議員の会)'을 만들어 비주류의 공세에 대응하였다.¹⁵⁾ 아베의 가치관 외교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의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 추진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네오콘의 이념적 지향성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치관 외교는 당연히 체제가 다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입장으로 연결되고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新YKK의 현실주의적 노선이다.¹⁶⁾ 新YKK가 아베 퇴임 이후 아소포위망을 형성하고 후쿠다를 지지

13) 『週刊アエラ』 2006년 1월 30일.

14) 『週刊アエラ』 2007년 7월 9일.

15) 위와 같음.

한 이유는 고이즈미와 아베로 이어지는 대중강경노선이 아소로 인해 더 전개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¹⁷⁾

新YKK는 2000년대 자민당 내의 매파적 아시아노선에 대한 반대의 공통의 인식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토는 헌법개정, 야스쿠니신사 문제, 역사문제, 영토 문제 등에 대해 일관된 보수리버럴의 입장에서 서 있다면, 아마자키와 고가는 부분적으로 헌법개정이나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있어서 보수리버럴로 간주될 수 없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3. 新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

2000년대 중반 자민당 내 비주류를 주도했던 新YKK 정치연합의 가토, 아마자키, 고가 삼인은 현실주의적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그들의 각각의 개별 이슈에 대한 상당한 차이점이 포착된다. 그들은 근린 아시아 국가 중국과 한국과의 선린 관계의 유지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영토문제의 보류(棚上げ)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신중한 자세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 매우 상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아마자키는 호헌의 관점을 유지하는 가토, 고가와 대별되고, 일본유족회장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적극적인 고가와

16) 屋山太郎, 『安倍政権で再び大国を目指す日本—価値観外交とTPPが成長のカギ』, 海竜社, 2013.

17) 『朝日新聞』 2007년 9년 28일.

는 달리 가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아마자키는 본인 스스로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곤 하지만, 외교적 필요성으로 총리와 핵심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획일적 관점에서는 헌법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이슈로 판단컨대 가토를 제외한 아마자키와 고가는 우익적 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아시아 근린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일본 정치권 내의 목소리는 한국의 대일정책의 관점에서 일본이 보수우경화로 진행되는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가토, 아마자키, 고가 삼인의 영토·역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입장,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입장,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을 각기 비교하고자 한다.

1) 영토·역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가토, 아마자키, 고가의 현실주의적 외교인식의 핵심은 한국과 중국과의 선린 관계가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가토, 아마자키, 고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일본 우익들에 의해 친중파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대표적 자민당 내 보수리버럴인 가토는 우익으로부터 친중을 넘어 미중(媚中)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아마자키와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하는 면에서 보수리버럴로 간주되지 않지만, 아시아중시파로 분류된다. 매과 외교 노선이 득세한 2000년대 중반, 2005년에 자민당 정조회장, 2006년에 간사장을 역임한 나가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는 이들 아시아중시파들을 고루한 낡은 감상에 주변국에 양보만

할 가능성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들로 분류하고 있다.¹⁸⁾ 이는 한국과 중국과의 핵심 이슈들에서 1990년대 많은 양보를 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자민당 내 매파의 불만의 목소리이자, 1990년대 온건 노선에 서 있는 자민당 내 아시아중시파들에 대한 2000년대 신주류의 세대적 차이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아시아중시파로 간주되는 가토, 야마자키, 고가는 모두 아시아 근린 국가의 주요 현안문제에서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들의 입장은 자민당 신주류의 강경노선 속에 2000년대 중후반 위안부와 영토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이끌지는 못했다. 다만, 당내의 온건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가토, 야마자키, 고가의 당내 세력이 보다 강력하여 2006년의 고이즈미 퇴임 이후 아베와 아소의 총재와 총리 취임을 막을 힘이 있었다면, 2000년대 후반의 한일, 중일관계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자민당 내의 중심적 노선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위한 현안 이슈의 타협적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신하였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가토가 가장 적극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고노담화가 나오게 된 1992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 당시의 관방장관이었던 가토는 당시의 조사에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 우익과 자민당 내 매파의 의심을 반박하여왔다. 3년의 민주당 정권이 끝난 후 재복귀한 자민당정권의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한 부정의 언급을 자행할 때도 1990년대 초 일본정부 조사

18) 『朝日新聞』 2006년 8월 25일.

의 담당자로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¹⁹⁾ 또한 가토는 일부 매파 정치인들이 미국 의회에서의 위안부결의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미국 내에서 홍보하는 행위가 일본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²⁰⁾ 야마자키와 고가는 가토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위안부예의 국가 책임이 있었다는 고노담화를 물고 늘어지는 양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이슈를 공동역사교과서 작업으로 탈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²¹⁾

영토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한일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독도가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 상태이고, 이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토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연결된 한일 간 어업협정 문제에서도 보다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1990년대부터 언급하여왔다.²²⁾ 가토를 비롯한 야마자키, 고가 등의 아시아중시파는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어필할 것을 주장하는 자민당 내 매파의 목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다.²³⁾ 하지만, 이들이 정치적 힘을 잃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자민당 내의 논의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매파를 제어할 내부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가토, 야마자키, 고가는 문제이슈화의 보류(棚あげ)

19) 『朝日新聞』 2013년 10월 14일.

20) 『朝日新聞』 2007년 4월 19일.

21) 『朝日新聞』 2001년 7월 9일.

22) 『朝日新聞』 1997년 7월 4일.

23) 『朝日新聞』 1997년 1월 22일.

의 입장에 서왔다. 중일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는 가토는 중국 지도부와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일본 유력 정치인으로 간주된다.²⁴⁾ 2013년에 제2차 아베정권 하에서 중일관계가 차가워진 상황에서 가토, 고가는 중국을 방문하여 중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²⁵⁾ 2013년 6월 초당파 의원의 방중 당시 노나가 히로무(野中広務) 전 관방장관의 중일 국교정상화 때에 센카쿠문제는 보류(棚あし)로 협의된 바이며 이를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언이 일본 내에 문제화되었을 때, 함께 방중했던 고가는 노나가가 혼자만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며 노나가를 옹호했다.²⁶⁾ 이런 입장은 아시아중시파인 新YKK 삼인에 의해 공유되는 바이다.

2)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입장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의 4월 21일과 8월 15일 참배를 계기로 한일, 중일관계에 중요한 이슈로서 자리 잡았다. 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A급 전범의 합사가 이루어진 1978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감행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중요한 역사 이슈로서 부상하였다. 그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자제하는 패턴이 자리 잡았고 하시모토 류타로의 1996년 7월 29일 참배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루어지지

24) 『朝日新聞』 2010년 9월 29일.

25) 『朝日新聞』 2013년 6월 5일, 2013년 10월 25일.

26) 『朝日新聞』 2013년 6월 7일.

않았다. 하지만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취임 전부터 총리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것을 공언하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6년 동안 매년 참배를 감행하였다. 2001년에는 8월 15일 이틀 전인 8월 13일에 참배하였고, 그 후 8월을 피해 매년 참배를 지속하다가 퇴임 바로 전인 2006년에는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고이즈미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2000년대 자민당 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고이즈미 이후의 총재 선거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가토와 야마자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토와 야마자키는 2001년 8월 11일 고이즈미 전 총리와 회담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려면 최대한 8월 15일은 피하라는 조언을 하였고,²⁷⁾ 그 결과가 고이즈미 전 총리의 8월 13일 참배로 귀결되었다. 1990년대 YKK로 고이즈미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가토와 야마자키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의 폭주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가토와 야마자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야마자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외교적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본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상이한 입장으로 드러난다. 가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반면에 야마자키는 본인이 모두 함께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의 소속멤버로서, 고이즈미에게 참배를 회피할 것을 권유한 2001년 8월 15일에 본인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다.²⁸⁾ 즉 야마자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의의

27) 『朝日新聞』 2001년 8월 12일.

28) 『朝日新聞』 2001년 8월 15일.

에는 동의하나, 총리의 참배는 외교문제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가토, 야마자키와는 달리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일본 내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2002년부터 일본유족회의 회장직을 수행해온 고가는 전몰자에 대한 추도를 위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기대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유족회 회장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총대의 직함도 가지고 있는 고가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고가는 A급 전범의 합사로 인한 야스쿠니 신사의 외교 문제화를 긴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복잡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고이즈미 집권 후반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외교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⁹⁾

가토, 야마자키와 고가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의 상이한 해결책의 모색으로 연결된다. 가토와 야마자키는 야스쿠니 신사 대신에 국가 차원의 추모시설을 건설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야마자키는 가토와 함께 초당파 모임 국가추도시설을 생각하는 모임(国立追悼施設を考える会)을 만들고 비국가종교단체인 야스쿠니 신사 대신에 전몰자를 추도하는 대체 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³⁰⁾ 야스쿠니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고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의 국가시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³¹⁾ 그는 야스쿠니의 전몰자 추도시설로서의 대표

29) 『朝日新聞』 2005년 6월 12일.

30) 『朝日新聞』 2005년 11월 17일.

31) 『朝日新聞』 2006년 7월 5일.

성 자체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신에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02년에는 유족이 희망하면 A급 전범을 분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³²⁾ 2006년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의 정책제언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³³⁾ 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A급 전범 분사 제안은 일본사회 우파로부터 비판에 직면했고, 그 결과로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 총대직을 사임하게 이른다.³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가토가 가장 리버럴하다. 그의 아마가타현의 자택이 2006년 방화된 것도 이러한 그의 야스쿠니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아마자키는 전몰자 추모는 필요하나 그 대상이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한편,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의 절대적 가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삼인 모두 야스쿠니 신사가 외교문제가 된다면 굳이 총리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지닌다. 즉 현실주의적 외교 감각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3)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

헌법개정에 대한 가토, 아마자키, 고가의 입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가토와 고가는 호헌파인 반면에 아마자키는 헌법개정에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요시다 노선의 정통주류인 고치회의 영수였던 가토와 고가는 고치회의 전통적인 관점인 평화헌법의 지지에 굳게 서있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평화헌법의 기

32) 『朝日新聞』 2002년 8월 9일.

33) 『朝日新聞』 2006년 5월 13일.

34) 『朝日新聞』 2006년 10월 6일.

본이념에 입각한 신헌법을 수립하는 ‘호헌적개헌론’을 주장하였다.³⁵⁾ 가토는 2010년대 들어서도 자민당 내의 보수적 색채의 개헌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³⁶⁾ 또한 고가는 최근 아베 정권이 헌법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헌법 96조에 먼저 손을 데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일본공산당 일간지 적기(赤旗)와 하여 크게 이슈화되었다.³⁷⁾

반면에 야마자키는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 후 2005년 보선을 통해 의원직을 회복하는 동안, 자민당헌법조사특별고문겸총리보좌관으로 헌법개정의 준비에 노력하였다. 그는 헌법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자이다.³⁸⁾ 2004년에는 개헌안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여 개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일종의 개헌 외교특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³⁹⁾ 하지만 그는 헌법개정의 방법에 있어서 협조파이다. 아베와 같은 적극적인 돌파형이 아니고, 타당에 대한 배려 속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야마자키는 2007년 제1차 아베내각이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연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헌법개정을 통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해석개헌을 하면 헌법의 토대가 흔들린다고 우려하였다.⁴¹⁾ 야마자키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해 아베를 비롯한

35) 『朝日新聞』 2004년 5월 1일.

36) 『朝日新聞』 2012년 2월 29일.

37) 『朝日新聞』 2013년 7월 12일.

38) 『朝日新聞』 2003년 6월 13일.

39) 『朝日新聞』 2004년 7월 8일.

40) 『朝日新聞』 2005년 10월 29일.

41) 『朝日新聞』 2007년 4월 27일.

자민당 내 매파와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는 절차와 타협 속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헌법개정예의 과정에 대해 온건노선을 지니고 있다.

4)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북한은 2000년대 일본 정치권의 외교노선의 매파가 힘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개발문제로 인해 일본은 대북한 강경노선으로 나아갔고, 대북한 강경노선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新YKK 삼인 중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사람은 야마자키이다. 북한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던 야마자키는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일본인 납치자의 일본으로의 귀국과 잔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⁴²⁾ 고이즈미 정권 시절,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 야마자키는 강경매파인 아베와 대립되는 위치에 서있었다. 아베와의 입장 차이는 2006년 아베정권의 수립 후에도 지속된다. 아베가 북한의 핵기지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것에 비판하고,⁴³⁾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관계자와 납치자문제에 대해 교섭하면서,⁴⁴⁾ 당시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⁴⁵⁾

야마자키는 북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보다 안정

42) 『朝日新聞』 2004년 5월 9일.

43) 『朝日新聞』 2006년 7월 27일.

44) 『朝日新聞』 2007년 1월 10일.

45) 『朝日新聞』 2007년 2월 19일.

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협조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야마자키의 유화론적 관점은 아베의 강경노선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⁴⁶⁾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북한이 고립과 대립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대화중시노선의 야마자키의 대북한정책의 입장은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4. 新YKK 정치연대의 정치적 몰락과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후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하면서, 상이한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헌법 개정, 대북한정책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법론적 입장을 견지하던 가토, 야마자키, 고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거나 헌법개정을 주장하더라도 한일관계에서 한국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악화로 치닫는 와중에 이들은 실력을 발휘할 정치적 위상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미 2006년 아베의 자민당 총재 선출을 막을 수 없었다. 이들은 2007년 아베 후임으로 아소를 막는데 성공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의 정치력이라기보다는 아소의 자민당 내 좁은 입지에 기인하는 한편, 그들이 지지했던 후쿠다가 2000년대 자민당의 주류인 모리파의 유력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이미 2000년대 자민당 내에서 아시아 근린국에 대해 강경노선에 서있는 주류에 대한

46) 『朝日新聞』 2008년 6월 20일.

비주류파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 들어 2009년까지의 자민당 집권기에 비주류에 있던 아베, 야마자키, 고가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퇴장의 기점이 되는 2009년과 2012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야마자키는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년 정계은퇴를 선언하였고, 가토는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계열 상대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사실상 정계은퇴 상태이다. 한편 고가는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치회의 분열을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이들 3인의 정계은퇴는 2000년대 자민당 비주류였던 新YKK의 몰락만이 아닌 그들이 대표했던 자민당 내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엄청난 후퇴이기도 하다.

가토, 야마자키, 고가는 모두 파벌의 영수로서 그들에게는 각각 파벌의 후계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파벌계승자들이 그들과 같은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을 강하게 입장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의 파벌계승자 모두 현재 제2차 아베내각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2001년 가토의 난으로 고치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가토의 파벌계승자인 다니가키 사카즈(谷垣禎一)는 가토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을 뒤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법무대신을 역임하고 그 후 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베내각의 외교노선에 차별화된 관점을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2006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총리 재임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중국, 한국 정상과 상시적 대화가 가능한 ‘아시아핫라인’의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근린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1년 분열되었다가 2008년 통합된 고치회에 속해있던 다니가키는 2012년 총재 선거에의 재출마에 대한 고치회의 지지

를 받지 못하자 지지의원들과 함께 소수파벌을 만들어 독립한 상태이다. 현재로서 다니가키의 자민당 내의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치회의 영수였던 고가는 2012년 고치회의 회장직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에게 물려주었다. 현재 제2차 아베내각에서 외무대신을 맡고 있는 기시다는 아베 내각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발언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4월 24일의 고치회 파티에서 전 회장 고가의 '평화주의라는 고치회의 역사철학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다'는 표현에 비해서 현 회장 기시다는 '제대로 외교정책을 가다듬어 광폭의 자민당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원론적 표현밖에 내놓지 못했다.⁴⁷⁾

한편 야마자키는 자신의 파벌을 2007년 입회한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에게 물려주었다. 이시하라의 야마자키파로의 가입과 파벌회장직 취임 모두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외교정책에 있어 야마자키와 어떤 일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조직 내 조정에 능한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당 안팎의 조정에 능한 야마자키의 후계가 되는 것은 어울리는 면도 지닌다. 제2차 아베내각에서 환경대신을 역임하고, 2016년 초에 경제재정담당대신으로 내각에 다시 들어오게 된 그에게서 외교관계에서 현 정권과 차별화된 특별한 목소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新YKK 3인의 파벌계승자인 다니가키, 기시다,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모두 아베정권의 각료로서 그들이 파벌 전임영수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

47) 『朝日新聞』 2013년 4월 25일.

선의 어떤 면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현재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新YKK의 파벌계승자들은 新YKK와는 다른 정치세대에 속하고 있다는 점의 의미는 중요해 보인다. 현재 자민당은 ‘총아베파’라는 일부 베테랑 의원들의 탄식은⁴⁸⁾ 단순히 레토릭이라기 보다는 일본정치에서 세대변화 속에 오는 (파벌의 입장을 넘어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태도의 전체적인 보수화의 위험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新YKK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은 현재 자민당 내에서 매우 왜소화되어 있다. 그들의 파벌계승자들로부터 그들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이 보이지 않는다. 정계 은퇴한 가토, 야마자키, 고가는 여전히 언론과의 활발한 접촉 속에 자신들의 외교노선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반대되는 아베 총리의 강경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주류의 실패로 자민당이 3년 동안 정권을 내주었음에도, 그 후에도 그들은 비주류의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입지가 보다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정치적 수완의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강조했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이 결실을 볼 수 없을 만큼 대립적 한일, 중일 관계가 노정되면서 일본 내에서 그들의 입지가 악화된 것에서도 기인한다.

한국 내 일반적 관점에서 新YKK의 가토, 야마자키, 고가를 판단하면, 야마자키와 고가는 일본 보수우익 정치인 중 한명으로 간주될 수도 있

48) 위와 같음.

다. 하나의 이슈에서만이라도 보수적 입장이 나오면 그 정치인을 보수 우익으로 간주하는 획일적 판단이 한국에서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을 원하는 아마자키와 일본유족회 회장으로 야스쿠니 신사 총대를 역임한 고가는 그럼에도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매우 유화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지니고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았었다. 한국의 대일정책에서 이러한 수준의 보수적 정치인들을 대화상대로 할 수 있다면, 건설적 한일관계 설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내에 가토와 같은 보수리버럴과 진보, 혁신 정치 그룹만을 상대로 한일관계 현안을 논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일본 정치구도에서 자명하다. 건설적 한일관계 설계를 위해 일본정치의 온건보수의 폭을 한국 쪽에서 넓혀 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